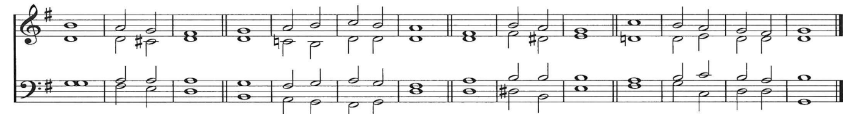


※ 시편 116:1-2, 12-19



-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 *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주셨/다.
-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 구원의 감사 잔을 받/들고/서 *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 드/리리/니
- *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 그분께 /귀중/하-/다.
-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 * 당신 여종의 아들인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 주님의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 * 주님께 나의 성원을 채/워드/리리/라.
- 주님의 집 뜰 안에서, 너 예루살렘 한 가/운데/서
- * 나의 서원을 바치리라. /알렐/루-/야.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신자들의 기도

교 회 : [교구] 예산교회과 심규용 신부

[기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과 권경아 관장

[일본 도호쿠교구] 하치노헤 성 루가 교회와 고시아마 테츠야 신부

[세계 성공회] 동남아시아 관구를 위하여

정의 평화 :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가 되기를,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 : 전쟁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아픈 사람 : 김윤진 세실리아, 이연우 요아킴(이병연의 부), 유정화 루시아, 황인옥 야고보, 황수복 마리아(김인숙의 모), 류시정 어거스틴의 회복을 위하여, 그 외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특 도 : 어머니교회, 선교하는 교회, 녹색교회,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 군 복무 중인 김재운, 신이섭을 위하여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모임과, 새롭게 시작하는 소모임을 위하여

: 고하은 엘리사벳, 임성아 데레사, 류지인 헬레나, 강은실(김진수 솔로몬의 배우자)과 태중의 아기들을 위하여

별 세 자 : 류평우 요셉(류시정의 부, 18일), 한화애어로 스페이스 사고 희생자들을 위하여

※ 금주의 말씀

“길 잃은 이를 측은하게 보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마태 9:35-10:8)

김희영 드보라 신부 / 광주성당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암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우울증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이는 고독이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모두 틀린 답은 아니지요. 실제로 현대 사회는 수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고, 그 질병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정기검진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지쳐 있으며,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몸은 건강해졌는데 마음은 더 허약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지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 보셨습니다.

사실 양이 길을 잃는 이유는 단순히 방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따라가야 할 목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더 성공하라고 말하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며, 더 젊고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들을 따라가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먼저 느끼신 것이 분노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음말씀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사명도 모두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단숨에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그 병만 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난만 보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지적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줄 세울 때, 교회는 하느님께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두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도, 사랑도, 용서도, 신앙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은총은 다시 흘러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외로운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일, 상처 입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일,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함께 걸어주는 일도 거저 받은 은총을 거저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길 잃은 양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소리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물음에 답하며 침 없이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능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공동주보 말씀 ※

6월 21일 장동윤 신부 / 6월 28일 주명철 신부

제 1846호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공동주보

2026. 6. 14.
· 가해 ·
연중11주일

생명의 길



마르크 샤갈, "아브라함과 세 천사"

교구표어: "담대히 전하고, 겸손히 섬기자"(로마 1:15-16)

교회표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 2:10) —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 교구장 / 관할사제: 김호욱(디도)주교
- 주임사제: 김경현(스테파노)신부
- 보좌사제: 이해선(요안나)신부
- 음악감독: 최진현(수산나)
- 오르간: 최진현, 조영지, 김효치
- 복사단: 사무엘 복사단

예배 및 기도 시간 안내

- 주일 감사성찬례_오전 9:00(1부)
- 오전 11:00(2부)
- 오후 2:30(3부)
- 주일학교_오전 9:30(온라인)
- 오전 11:00(오프라인)
- 수요일 감사성찬례 : 오후 2:00 (2층 소성당)
- : 오후 8:00 (2층 소성당)
- 토요일 노래로 드리는 저녁기도 : 오후 5:00(2층 소성당)
- 주말학교 : 매월 첫 주 토요일

- 신자회장: 임규찬(스테반)
- 사제회장: 박종미(데레사)
- 어머니회장: 강효숙(데레사)
- 아버지회장: 김선규(안토니오)
- 청년회장: 신윤섭(루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7-8

☎042-226-2274 / http://cafe.daum.net/ang.daejeon

